

김정은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의 특징*

오삼언** · 박소영***

- I. 서론
- II. 북한의 자연보호구법 개정과 현황
- III. 2013년~2022년 『로동신문』에 나타난 보도 양상
 - 1.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 보도 양상
 - 2.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보도 양상
- IV. 김정은 집권 시기 자연보호구 정책 특징
 - 1. 유용동물보호구의 확대
 - 2. 오가산자연보호구의 부각
- V.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의 변화 양상, 특징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자연보호구 관련 키워드를 수집, 분석했다.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 8개, 연관 키워드 5개 등 총 13개 키워드를 통해 연도별 및 지역별 추이와 내용 분석 등을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가 증가하며 유용동물 관련 보도는 2020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는 양강도, 자강도가 많았으며 연관 키워드는 강원도, 평안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로동신문』을 통해 자연보호구 정책의 특징을 도출해보면 2015년부터 시작된 산림

복구전투와 연계되어 유용동물보호구와 오가산자연보호구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천연원시림인 오가산자연보호구는 '김정일애국주의' 상징으로 강조되며 천연기념물 대상지가 6,500여 정보로 대폭 늘어났다. 유용동물보호구는 유용동물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최소 26곳 이상, 임시보호구 300여곳이 조성되어 자연보호구 전체 규모와 양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제어: 김정은, 자연보호구, 유용동물, 동물보호구, 오가산

* 본 논문은 2023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23.4.21, 이화여자대학교)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박사연구원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연구사

I. 서론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시하면서 자연보호를 강조하고, 2015년에는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를 호소하는 담화문에서도 생태환경 문제를 부각시켰다.¹ 특히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는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되면서 북한에서 생태환경 문제는 과거와 달리 우선순위로 다뤄지기 시작했다.² 2019년 중장기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년)을 수립하면서도 전략적 목표 자체를 “전반적 생태환경을 회복단계에 올리고 녹색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것으로 삼았다고 밝혀 생태환경 문제를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³ 북한은 생태환경을 이슈로 한 국제협력에도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 유엔(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이하 국가검토보고서)⁴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생태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의 자연보호구 관련 정책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검토보고서⁵를 통해서도 자연보호구 관리제도를 개선해왔으며 보호지역 또한 확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생물권보호구 및 기존에 등록된 자연물, 동물, 식물 보호구역의 관리가 개선되었으며 동물 보호구역이 확장되고 관리 체계는 간소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5년까지 보호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은

¹ 김정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조선중앙통신』, 2012.5.8;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5년 2월 26일),” 『로동신문』, 2015.2.27.

²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pp. 1~249

³ “북한,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호전략 마련,” 『NK경제』, 2020.2.14.

⁴ 2021년 7월에 제출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에서는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DPR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⁵ 북한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생태환경 관련 통계지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2021년 6월 말 제출한 국가검토보고서를 통해서도 관련 수치를 밝힐만큼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삼언·박소영,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25권 3호 (2022), pp. 181~223; 명수정, “북한 환경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북한통계 해설자료, 통계청, (2021.12.), pp. 254~273.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생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연보호구 정책의 변화를 추적하고 자연보호구 정책에서 부각되고 있는 유용동물보호구와 오가산자연보호구의 특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자연보호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연보호구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학영·유병혁(2021)은 북한의 자연보호구 관련 법을 개괄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북한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연보호구 현황을 분석, 정리했다. 이 연구는 북한이 2007년에 제출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NBSAP)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⁶ 김서린(2018)은 2005년 북한이 발간한 도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자연보호구 현황을 짚고 북한의 ‘보호지역’ 개념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했다. 북한이 2015년 민족유산법을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기도 하다.⁷ 김명신(2021)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별로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과 활동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민족유산법이 유네스코의 유형무산, 무형무산, 자연유산이라는 분류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김정은 집권 시기 국제보호지역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봤다.⁸

명수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자연보호구 관련 법 내용들이 분석되었으며 자연보호구 지정 흐름도 시기별로 개괄, 요약돼있다. 이 연구에서도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자료들이 인용, 분석됐다.⁹ 최현아(2019)의 연구는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습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습지자원 보호조약인 랍사르 협약 등에 주목하고 있다.¹⁰ 손기웅 외(2002)의 연구에서는 2002년 북한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자연보호구 현황이 요약돼있으며¹¹ 이윤·차은영(2014)은 북한의 환경보호법과 자연보호구법의 조항 분석 등을 통해 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¹² 이밖에 자연보호구와 관련이 있는 천연기념물, 명승지를 연

⁶ 허학영·유병혁,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5권 제1호 (2021), pp. 81~91.

⁷ 김서린,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국립공원연구지』, 제9호 제3권 (2018), pp. 365~373.

⁸ 김명신,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제3호 (2021), pp. 7~41.

⁹ 명수정 외,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¹⁰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9), pp. 1~191.

¹¹ 손기웅 외,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 pp. 75~82.

구대상으로 한 이우영(2012)¹³, 2016년 북한이 발간한 멸종위기동물 목록 등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한 최동묵 외(2020)¹⁴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2007년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지역’에 대한 연관법 조항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 자연보호구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와 달리 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 보도 분석을 통해 자연보호구 정책의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본다. 또한 2015년부터 시작된 산림복구전투와 연계하여 자연보호구 정책 강화의 양상을 분석한다. 자연보호구 지정 및 보존 문제는 산림 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된 이듬해인 2016년 위기동물 적색목록을 IUCN 세계적색목록(Global Red List) 범주에 따라 구분하면서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동물’(Red Data Book of DPRK (Animal))을 발간¹⁵ 하는 등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문헌은 『로동신문』과 더불어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에 제출한 자료다. 북한이 1998년, 2005년 4월 20일, 2005년 12월 28일, 2011년, 2016년에 제출한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of Biodiversity of DPR Korea, NR)와 1998년, 2007년에 제출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NBSAP)이다.¹⁶

또한 본 논문은 『로동신문』에서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와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등 크게 두 갈래로 키워드를 분류, 분석했다. 자연보호구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자연보호구법에 명시된 ‘자연보호구’를 포함한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 6개와 ‘새보호구’, ‘습지보호구’ 등 2개를 합한 총 8개 키워드다.¹⁷

¹² 이윤-차은영,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보호제도 고찰: 경제분석의 한계,” 『한국환경과학회지』, 제23권 제12호 (2014), pp. 2107~2120.

¹³ 이우영, “북한 명승지 정책의 성격,” 『통일인문학』, 제53권 (2012), pp. 131~170.

¹⁴ 최동묵·박순성, “북한의 멸종위기동물과 관련 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북한학연구』, 제16권 제2호 (2020), pp. 307~339.

¹⁵ 최현아,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신진연구자논문집』 (통일부, 2019), pp. 1~66.

¹⁶ CBD보고서 외에 북한의 자연보호구 현황을 알 수 있는 국제기구 및 NGO가 확보한 별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자연보호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내용 상에서 자연보호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판단한 키워드는 ‘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등 5개 키워드를 꼽았다. 두 갈래 키워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표 1〉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의 분류 기준

분류	키워드	총합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	자연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새보호구, 습지보호구	8개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5개

다음으로 모두 13개 키워드에 대한 상세한 집계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2).

〈표 2〉 13개 키워드의 상세 집계기준

키워드	집계 기준
자연보호구, 새보호구, 습지보호구, 식물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생태관광	해당 단어가 들어가면 집계함.
동물보호구	‘동물보호구’, ‘유용동물보호구’, ‘야생동물보호구’와 같이 동물보호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포함함. 동물이 속해있지만 명칭이 다른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등은 포함하지 않음.
생물권보호구	‘생물권보호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계함.
유용동물	‘유용동물’, ‘유용동물보호구’, ‘유용동물사업소’ 등 ‘유용동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집계함.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제외함.
명승지	‘명승’, ‘명승지’를 포함해 집계함. ‘명산’, ‘명소’와 같이 ‘명승’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역사유적	‘역사유적’, ‘유적’, ‘역사유적유물’, ‘역사문화유적유물’ 등을 포함해 집계했으며 유물은 제외함. 역사유적전시구, 역사유적유물전시실을 포함함.

¹⁷ 동물보호구 해당 키워드 집계에서는 철새 등 새보호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새보호구는 별도로 집계했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북한의 자연보호구법 개정의 의미를 짚으면서 자연보호구 현황을 개괄하며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로동신문』에 보도된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에 대한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자연보호구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도출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로동신문』은 자연보호구법이 개정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를 시기적 범위로 삼았다.

II. 북한의 자연보호구법 개정과 현황

북한의 자연보호구는 2013년 개정된 자연보호구법에 따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규정되며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 것”이 해당된다.¹⁸ 이에 따라 북한의 자연보호구는 생물권보호구인 백두산 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하여 자연보호구인 오가산자연보호구, 묘향산자연보호구, 칠보산자연보호구, 금강산자연보호구, 구월산자연보호구, 랑림산자연보호구, 경성자연보호구, 관모봉고산식물보호구 등의 개별 동물 및 식물보호구, 번식보호구, 각종 임시보호구 등이 망라된다.¹⁹ 이 중 생물권보호구²⁰는 유네스코의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인 ‘생물권보전지역’의 북한 표현이다. 즉, 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권보호구’라는 이름으로 자연보호구에 포함시키고 있다.²¹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에 따르면 자연보호구는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동식물 종이 집중분포되어있는 지역, 특산종·위기종·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제10조) 등 4가지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²² 그런데 2013년 개정된 자연보호구법에는 2009년에 표기되었지 않았던 ‘생

¹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2009년 11월 제정, 2013년 7월 수정보충.

¹⁹ 『로동신문』, 2020.2.18.

²⁰ 『로동신문』, 2018.8.4.

²¹ 북한의 자연보호구 관련 법 및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명수정 외,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오삼언·박소영, “김정은 시대 자연보호구 정책의 특징 연구,”(2023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3.4.21.) 등 참조.

²²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법의 기본(제1장), 자연보호구의 설정(제2장), 자연보호구의 조사(제3장), 자연보호구의 관리(제4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 등 총 5장 43조로

물권보호구'가 '제2조 자연보호구 정의'에 추가됐다.²³ 생물권보호구가 법 체계에 삽입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련 자연보호구 정책이 강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보호구법 개정 이후인 2014년과 2018년에 칠보산과 금강산이 각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²⁴

북한은 1946년 백두산이 '식물보호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백두산을 자연보호구 역사의 출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보물, 고전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는,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학술연구의 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절터나 고적, 동식물, 지질 등을 '보물'이나 '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²⁶ 이에 근거해 백두산이 식물보호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북한의 첫 자연보호구는 1954년 4월 지정된 묘향산이다.²⁷ 북한 전역에 자연보호구가 설치된 시기는 묘향산 자연보호구가 지정된 후 약 5년 뒤인 1959년 2월 내각 결정 이후다. 1959년 3월 백두산, 1976년 10월 구월산과 금강산, 2003년 6월 관모봉 등이 자연보호구로 설정됐다. 자연보호구가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등으로 세분화된 것은 1970년대 즈음으로 추정된다.²⁸

2023년 현재 북한 자연보호구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개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자연보호구 확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 중 자연보호구 면적과 개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98년 자료²⁹와 2011년 자료³⁰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1995년 127곳이었던 자연보호구는 2006년에는 326곳으로 늘어났다.³¹ 면적도 696,927ha에서 876,035ha로 변화해 1995년에 비해 2006년

구성돼있다.

²³ 2009년과 2013년 자연보호구법을 비교해보면 이 부분만 개정됐다.

²⁴ 묘향산은 2009년, 구월산은 2004년, 백두산은 1989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²⁵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평양:모란인쇄기술사, 2005), p. 33.

²⁶ 『북한관계사료집』, 제 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 p. 839.

²⁷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NBSAP, 1998).

²⁸ "승고한 애국의 뜻 받들어 푸른 숲 끝없이 펼쳐가리," 『로동신문』, 2018.3.4.

²⁹ DPR Kore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1998, p. 6.

³⁰ DPR Korea, 4th National Report of DPR Korea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 p. 19.

³¹ 북한은 1998년 자료에서는 1995년 현황을, 2011년 자료에서는 2006년 현황을 표기하고 있다.

에는 179,108ha가 확대됐다(표3).

북한은 2006년만이 아니라 2007년³²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연보호구 전체 면적을 879,275ha로 표기하고 있으나 두 자료 모두 자연보호구 면적을 합하면 879,275ha가 아니라 876,035ha이다. 따라서 북한이 ‘1995년 자연보호구 면적 692,927ha(국토 면적의 5.68%)에서 2006년 879,275ha(국토 면적의 7.2%)로 확대됐다’고 표기한 수치 또한 오류로 보인다.³³

〈표 3〉 북한이 2007년 CBD에 제출한 자연보호구 현황

보호구 이름	수	면적(ha)
오가산, 랑림산, 관모봉 자연보호구	4	63,912
백두산, 구월산의 생물권보호구의 핵지대	2	24,247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구월산, 장수산 자연공원 등	21	167,900
천연기념물보호지역	127	191,157
식물보호구	25	25,698.2
동물보호구	25	58,973.4
철새(습지, 번식지) 보호구	24	26,917.5
바다새보호구	7	214.5
경관보호구	60	223,667
수산자원보호구	26	50,690
식물자원보호구	4	6,659
백두산생물권보호구완충지대	1	36,000
합계	326	876,035.6

출처: PYONGYANG, DPR Kore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2007, pp. 31~32의 표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CUN)의 분류체계 번호를 삭제했으며 합계 수치를 ‘879,275.2’에서 ‘876,035.6’로 정정했다.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10여 년간 자연보호구의 면적과 개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2016년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토 면적의 7.2%였던 자연보호구를 8%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으나 2016년 보고서에는 여전히 자연보호구 면적이 국토 면적의 7.2%로 보고돼있기 때문이다.³⁴ 또한 차후 확대 목표치도 생략되어 있다.

³² DPR Kore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2007, pp. 31~32.
³³ 879,275ha 수치는 평양에서 출판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에 표기된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평양:모란인쇄기술사, 2005).
³⁴ DPR Korea, 5th National Report of DPR Korea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6, p. 70.

한편 북한이 2021년 유엔(UN)에 제출한 국가검토보고서에는 2015년 기준 국토 면적 대비 생물권보호구(biosphere reserve area)의 면적이 4.6%라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자연보호구 전체가 아니라 생물권보호구 면적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⁵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연보호구 강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연보호구의 면적 또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Ⅲ. 2013년~2022년 『로동신문』에 나타난 보도 양상

1.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 보도 양상

자연보호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다. 우선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새보호구’, ‘습지보호구’와 ‘자연보호구’ 등 총 8개 키워드의 빈도를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먼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보호구’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에서는 2019년 보도량이 가장 많다. 또한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8개 키워드를 합한 보도량에서도 2019년부터 횡수가 대폭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물보호구’는 2019년부터 늘어나 2020년이 가장 많았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이후 ‘생물권보호구’에 대한 기사가 몇 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변화추이는 크지 않다. ‘새보호구’는 2022년 기사가 증가했으며 ‘습지보호구’, ‘식물보호구’ 보도량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원시림보호구와 ‘식물보호구’는 0건으로 나타났다(표4).

³⁵ 북한은 2016년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protected area’, 2021년 제출한 국가검토보고서에는 ‘biosphere reserve are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자연보호구, 생물권보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2013~2022년 『로동신문』 해당 키워드 보도 빈도 수³⁶

분류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습지보호구	식물보호구	합계
2013	3	0	0	0	1	0	4
2014	13	3	2	1	0	0	19
2015	3	1	1	0	0	0	5
2016	10	5	0	0	1	3	19
2017	5	1	0	0	1	0	7
2018	8	3	2	1	1	1	16
2019	16	6	3	2	0	1	28
2020	6	20	1	2	1	2	32
2021	5	13	3	1	2	0	24
2022	2	2	0	6	1	1	12
합계	71	54	12	13	8	8	166

출처: ‘원시림보호구’는 0건으로 표에서 제외함.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2019년부터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동물보호구에 대한 조사사업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³⁷ 또한 산림복구전투가 2018년부터 2단계로 돌입하면서 생태환경 정책들이 이 즈음부터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점과도 연관된다.³⁸ 2018년 북한은 습지자원 보호조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했으며 평안남도 문덕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나선철새보호구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³⁹ 같은 해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2019년은 2030년까지 자연보호구 확대 계획이 포함된 국토환경보호전략이 시행되는 첫 해다. 북한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기한을 둔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수립했는데 목표를 ‘생태환경을 회복단계로 올려 세우며 녹색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친환경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생활오물의 종합적이용률·도시 녹화율 등의 확대, 둘째, 자연보호구 면적 확대를 계획으로 수립했다. 실현방도로

³⁶ 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식물보호구 등은 모두 자연보호구에 포함되지만 키워드 분류에서는 별도로 집계했다.

³⁷ “유용동물보호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20.2.18.

³⁸ 북한 산림복구전투의 경과 및 성과와 관련하여는 오삼인·김은희,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 성과와 양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 25권 제2호 (2021), pp. 79~107.

³⁹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9), pp. 73~74.

는 환경과학기술의 발전, 국가환경관리의 개선, 환경보호사업의 전인민적사업 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⁰ 자연보호구 면적 확대 계획이 진행되면서 기사량이 2019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8개 키워드의 보도의 총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강도가 50건, 자강도가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평안북도 18건, 함경북도 12건, 강원도 10건 순으로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보호구’는 도 면적 중 산림 면적이 넓고 백두산과 오가산이 포함되어있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물보호구’는 평안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컸다. 평안북도가 산림 면적이 넓어 동물보호구 등 자연보호구 지정이 유리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특히 운산군이 동물보호구 관리사업에서 모범으로 내세워지면서 언급이 많았다.⁴¹

‘생물권보호구’는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등이 언급됐다. 이들 지역이 언급된 이유는 각각 함경북도는 칠보산, 양강도는 백두산, 평안북도는 묘향산, 황해남도는 구월산, 강원도는 금강산 생물권보호구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새보호구’는 평안남도와 나선특별시에 집중됐다. 식물보호구는 양강도 1건이며 습지보호구가 언급된 지역 보도는 0건이다(표5).

〈표 5〉 2013~2022년 『로동신문』 해당 키워드 지역별 보도 빈도 수⁴²

분류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식물보호구	합계
강원도	0	4	6	0	0	10
양강도	41	0	8	0	1	50
자강도	40	1	0	0	0	41
평안남도	0	1	0	5	0	6
평안북도	1	9	7	1	0	18
함경남도	0	0	0	0	0	0

⁴⁰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올해 환경오염확대 방지 등을 추진,” 『조선의 오늘』, 20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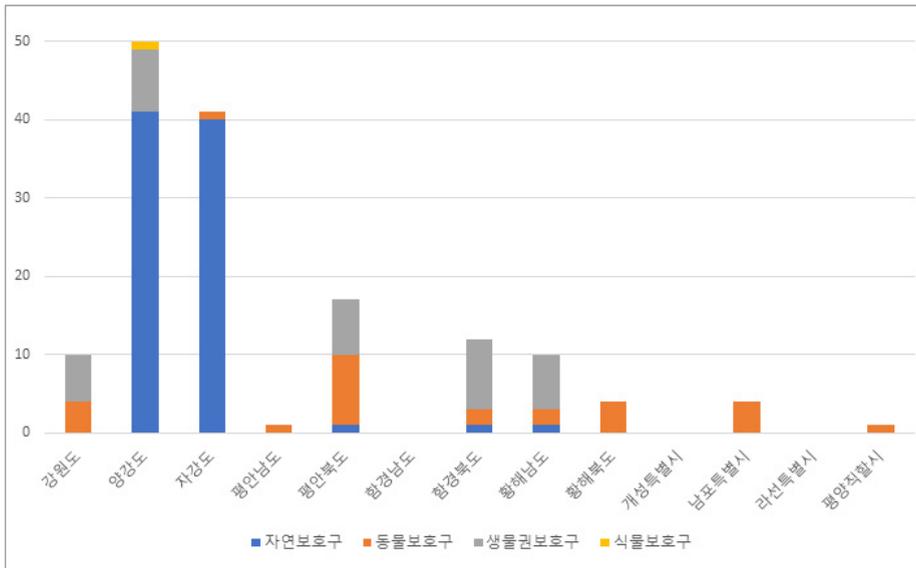
⁴¹ 2018년 기준 행정구역별 입목지 분포 면적(단위: 만ha.)은 평양 7.2, 남포 1.1, 개성 3.2, 강원 61.9, 황해남도 21.5, 황해북도 29.9, 평안남도 49.5, 평안북도 54.9, 자강도 112.8, 양강도 101.1, 함경남도 124.9, 함경북도 108.7 등이다. 김경민·임중빈·김은희 외,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제20-1호, 2020); 국립산림과학원 내부 자료.

⁴² 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식물보호구 등은 모두 자연보호구에 포함되지만 키워드 분류에서는 별도로 집계했다.

분류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새보호구	식물보호구	합계
함경북도	1	2	9	0	0	12
황해남도	1	2	7	0	0	10
황해북도	0	4	0	0	0	4
개성특별시	0	0	0	0	0	0
남포특별시	0	4	0	0	0	4
라선특별시	0	0	0	4	0	4
평양직할시	0	1	0	0	0	1
국외 보도	17	15	1	0	0	33
지역 불특정	11	14	0	7	7	39
합계	112	57	38	17	8	160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2013~2022년 『로동신문』 해당 키워드 지역별 보도 집계



2.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보도 양상

자연보호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연보호구와 내용상 연관이 깊은 ‘유용동물’⁴³,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등 5가지 키워드 빈도에 대해서도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북한에서 ‘유용동물보호구’라는 명

⁴³ 유용동물과 관련해서는 IV장 참조.

칭의 자연보호구가 있기 때문에 ‘유용동물’ 키워드를 별도로 수집, 분석했다. 또한 북한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 역사유적지, 생태관광 지역 등은 모두 자연보호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수집에 포함했다. 북한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는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로 규정되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이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⁴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보도 양상에서 주목할 점은 ‘유용동물’ 관련 보도가 2019년부터 증가해서 2020년과 2021년 보도량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이 유용동물보호구 확대 지시를 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기념물’ 관련 보도는 2019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생태관광’ 관련 보도는 2019년이 가장 많았다. ‘명승지’, ‘역사유적’과 관련된 기사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조금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역 내용이 늘어나면서 명승지, 역사유적 보도가 지면 관계 상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표6).

〈표 6〉 2013~2022년 『로동신문』 연관 키워드 보도 빈도 수

분류	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합계
2013	2	8	48	22	0	80
2014	2	15	50	41	0	108
2015	2	15	47	36	0	100
2016	4	7	28	26	1	66
2017	1	8	24	27	0	60
2018	2	11	55	16	1	85
2019	4	20	58	30	5	117
2020	19	19	38	30	0	106
2021	17	23	18	20	0	78
2022	6	21	22	14	0	63
합계	59	147	388	262	7	863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⁴⁴ 1995년 제정된 북한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제44조 등 참조.

5가지 키워드에 언급된 지역을 취합,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강원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천연기념물’(27건)과 ‘명승지’(126건) 등의 보도에서 언급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169건의 보도량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평안북도는 112건이 보도됐는데 ‘천연기념물’(15건)과 ‘명승지’(59건), ‘력사유적’(27건)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황해남도는 ‘력사유적’(27건), ‘명승지’(31건), ‘천연기념물’(16건) 등의 비중을 보이며 모두 77건이 보도됐다.

반면 황해북도는 평안북도나 황해남도와는 달리, ‘유용동물’ 관련 보도가 많았다. 황해북도는 ‘유용동물’(14건), ‘명승지’(28건), ‘력사유적’(16건) 등의 비중을 보이면서 ‘유용동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으로 나타나는 특색을 보였다. 20여 년 전인 2003년에도 황해북도의 노루와 꿩 보호구 조성이 주목된 바 있다.⁴⁵ ‘유용동물’ 관련 보도는 황해북도(14건), 평안북도(10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특징을 나타냈다.

평양직할시와 개성특별시는 ‘력사유적’ 관련 보도에서 각각 54건, 55건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역사유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관광지역으로 꼽히는 평양직할시와 개성특별시가 다른 지역보다 언급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뒤를 잇는 역사유적 지역은 평안북도(27건)와 황해남도(27건)로 나타났다(표7).

〈표 7〉 2013~2022년 『로동신문』 연관 키워드 지역별 보도 빈도 수

분류	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력사유적	생태관광	합계
강원도	5	27	126	10	1	169
양강도	0	23	11	4	1	39
자강도	1	12	4	6	1	24
평안남도	3	11	10	16	0	40
평안북도	10	15	59	27	1	112
함경남도	0	18	15	18	0	51
함경북도	3	11	31	10	1	56
황해남도	2	16	31	27	1	77
황해북도	14	10	28	16	0	68
개성특별시	2	5	12	55	0	74

⁴⁵ “北, 식용 야생동물 사육 확대,” 『통일뉴스』, 2003.10.10.

분류	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합계
남포특별시	3	3	6	6	0	18
라선특별시	0	2	1	6	0	9
평양직할시	4	16	35	54	0	109
국외 보도	0	1	10	33	6	50
지역 불특정	15	18	104	101	0	238
합계	62	188	483	389	12	1,134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김정은 집권 시기 자연보호구 정책 특징

1. 유용동물보호구의 확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유용동물보호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미 2012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유용동물보호기간을 매년 3월부터 7월까지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보호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유용동물보호구 정책의 강화가 예고됐다고 할 수 있다.⁴⁶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빈도에서도 앞의 (표4)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보호구 중 동물보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동물보호구’와 ‘유용동물’ 단어의 보도 빈도가 대폭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8).

〈표 8〉 ‘유용동물’, ‘동물보호구’ 관련 『로동신문』 보도 빈도 수

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용동물	2	2	2	4	1	2	4	19	17	6
동물보호구	0	3	1	5	1	3	6	20	13	2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에서 사용하는 유용동물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활에 이익을 주는 사슴, 까치, 클락새(크낙새)(유용동물보호법 제2조)’이다. 이 외에 『로동신문』의

⁴⁶ “유용동물보호증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로동신문』, 2021.11.23.

보도내용을 취합해보면 꿩, 노루, 참매 등도 포함된다. 유용동물 중 노루, 타조, 꿩 등은 요리나 약재 재료로 사용되어 주로 식용으로 기른다. 참매와 클락새는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과 보호 대상이다. 이렇듯 북한에서 ‘유용동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기 목적은 다르지만 ‘보호’와 ‘증식’의 대상인 셈이다. 유용동물법에 따르면 유용동물을 보호, 증식시키기 위해 동물보호구와 새호보구를 정하게 돼 있으며 보호구는 내각이 정하도록 돼있다(유용동물보호법 제5조). 2003년 황해북도에 조성된 노루, 꿩 보호구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했다.⁴⁷

유용동물보호 정책이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유용동물보호구는 유용동물들의 서식조건이 보장되는 야산 지역을 위주로 선정되어 산림조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용동물보호구는 혼성림 300~1,000ha의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평양시, 남포시 등 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실정에 맞게 유용동물보호구 수를 정하게 하고 있다. 해마다 꿩은 500~1,000마리, 노루는 30~50마리씩 키워 보호구에 방사한다.⁴⁸ 이에 따라 유용동물보호구관리소에는 유용동물에 대한 조사 및 보호·관리만 아니라 산림 조성 등의 시기와 방법, 출입 인원 등을 통제하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⁴⁹

둘째, 북한에서 유용동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기관 또한 산림복구전투를 담당하는 산림총국으로 확인된다. 유용동물 서식지가 대부분 산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⁵⁰ 현장에서는 산림감독원들과 유용동물보호구 관리원이 함께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로동신문』에서는 “총국에서는 보호구관리원, 산림감독원들과의 사업도 짜고들어 그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동물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높은 공민적의무감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 사업에 주인답게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¹ 이보다 앞선 2016년 4월 『로동신문』을 보면 산림감독원이 직접 유용동물보

⁴⁷ “北, 식용 야생동물 사육 확대,” 『통일뉴스』, 2003.10.10.

⁴⁸ “유용동물보호구를 새로 꾸린다,” 『로동신문』, 2020.3.5; “유용동물들을 적극 보호증식하자,” 『로동신문』, 2021.4.21.

⁴⁹ “국토환경보호형성 산림총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로동신문』, 2022.4.5.

⁵⁰ 2015년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산림총국이 담당기관이었던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⁵¹ “유용동물보호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20.2.18.

호구를 담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태탄군 산림경영소 삼봉리 산림감독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100여정보의 유용동물보호구에 500여개의 새 등지와 수천개의 소금주머니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⁵²

유용동물보호구는 산림복구전투와 연계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강조됐다. 이같은 맥락에서 2020년 5월 『로동신문』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복구전투와 유용동물보호 방사를 우선 과제로 손꼽기도 했다.⁵³

셋째, 유용동물보호 정책은 도 및 시, 군 단위까지 수립된 산림복구전투 체계를 통해 집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복구전투는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가 2015년 3월 내각에서 채택되고 2015년에 산림 분야 별도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⁵⁴ 2017년에는 북한 전역에 180여개 양묘장을 개건하는 등 도 및 시, 군 단위까지 체계가 수립됐다.⁵⁵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림감독원과 유용동물보호구 관리원이 함께 유용동물보호구를 관리하거나 혹은 산림감독원 단독으로 유용동물보호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유용동물보호 정책은 대중 동원 등에 용이한 시, 군 단위 산림복구전투 체계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 단위까지 관련 유용동물보호 정책 집행을 독려했다. 2021년 3월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강습회에서 유용동물보호구 관리 및 유용동물 증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용동물의 보호 확대·강화 흐름이 분기점을 맞는 것은 도 차원에서 유용동물보호구를 확대하는 202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⁵⁶ 북한 전역의 동물보호구에 대한 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나⁵⁷ 2020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도 차원의 유용동물보호구 건설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⁵⁸ 또한 도 차원에서 3월부터 7월까지 유용동물보호기간에 수행해야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21년 5월에 이르러서는 북한 전역의 야생동물보호구들에 대한 지표별 조사

⁵² “이런 산림가정들이 있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진다,” 『로동신문』, 2016.4.1.

⁵³ “인류의 공동과제-생물다양성의 보호,” 『로동신문』, 2020.5.22.

⁵⁴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8), pp. 101~133.

⁵⁵ 오삼언·김은희,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 성과와 양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 25권 제2호 (2021), pp. 79~107.

⁵⁶ “유용동물보호구를 늘이는 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0.3.11.

⁵⁷ “유용동물보호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20.2.18.

⁵⁸ “리로운 동물을 많이 번식시켜 조국강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자,” 『로동신문』, 2020.4.5.

를 전면적으로 하고 새로운 보호구를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가 야생동물보호구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보호구를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위기 및 희귀종들의 생태 보존과 생물다양성 보장, 유용동물보호 증식” 등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에 이르러서는 북한 전역에 동물보호구, 새보호구들과 서식지 주변에 감시지점들을 보강했다.

한편 2021년부터 새로운 보호구를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용동물보호구의 정확한 숫자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2013년 이후 공식적인 보호구는 최소 26개 이상, 임시보호구는 300여 곳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직할시를 포함해 4개 시와 8개 도로 되어있는데 2020년 내에 각 도마다 2개의 유용동물보호구를 시범적으로 관리하고 몇 년 안에 10개로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⁵⁹ 또한 2020년 2월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시보호구는 3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⁶⁰

한편, 『로동신문』은 일반적으로 보도 내용에서 구체적인 지역명을 명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용동물보호구 또한 위치와 규모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에 행정구역상 도 이상의 지명까지 보도된 유용동물보호구를 수집해 확인한 결과, 모두 20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9).

〈표 9〉 2013~2022년 『로동신문』에 지명이 보도된 유용동물보호구 현황

유용동물보호구 위치	분류(명칭)
강원도 세포군 대문리, 판교군 사동리 일대	양암산동물보호구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리	학봉산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	유용동물보호구
남포시 룡강군 삿갓봉지역	유용동물보호구
황해북도 연탄군 봉재리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철산군	유용동물보호구
황해북도 서흥군 문무리	유용동물보호구

⁵⁹ 위의 글.

⁶⁰ “유용동물보호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20.2.18.

유용동물보호구 위치	분류(명칭)
강원도 통천군	유용동물보호구
강원도 원산시	유용동물보호구
강원도 법동군	유용동물보호구
강원도 통천군	유용동물보호구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리지구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정주시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삭주군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유용동물보호구
함경북도 경성군 장양리	유용동물보호구
황해남도 태탄군 삼봉리	유용동물보호구
자강도 동신군 수신리	유용동물보호구
평양시 강남군	유용동물관리소
함경북도 칠보산	유용동물보호구
평안북도 태천군	유용동물보호구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오가산자연보호구의 부각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천연 원시림으로 손꼽히는 오가산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에서도 오가산은 절반 이상이 거론되는 비중을 보였다. 빈도만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오가산은 생태환경정책의 증표로 조명받고 있다. 2021년 오가산은 천연기념물 대상지가 약 6,500정보⁶¹로 대폭 늘어나는 조치가 취해졌다.⁶² 원래 원시림을 중심으로 약 800정보가 천연기념물 ‘오가산원시림’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1년 8배가 넘는 6,500여 정보의 넓은 지역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북한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생물권보호구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특별보호림⁶³이 아닌 유독 오가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

⁶¹ 1정보는 3,000평이다.

⁶² 오가산원시림은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오가산원시림,” 『메아리』, 2021.3.6.

⁶³ 북한은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것), 일반보호림(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산림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산림으로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삼연·김은희·김경민·박소영. “남북 산림법 및 정책

째, 천연 원시림인 오가산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왔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산림복구전투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오가산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 오가산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심과 노고 덕택으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곳으로 상징화하면서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인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천연 원시림인 오가산 관리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강화되는 생태환경정책의 효과 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가산은 자강도 화평군과 양강도 김형직군 사이에 위치하며 아한대성식물분포구와 온대성식물분포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해발 1,000m인 산봉우리 5개가 자리잡고 있어 오가산이라고 불리거나 가나령 밑에 5채의 집이 있었다고 해서 오가산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⁶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가산에는 1,100여 년 된 자란 주목, 700여 년 자란 피나무, 400여 년 자란 전나무와 잣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또한 직경이 10cm 이상 되고 길이가 40m 이상 뻗어나간 다래나무, 등칠편과 같이 오래 자란 덩굴나무들이 천연원시림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가산 원시림에는 산나물, 약용식물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식물자원이 풍부하며 짐승류와 새류, 파충류, 양서류 등 동물상도 다양하다.⁶⁵ 이 같은 이유로 북한 당국은 오가산의 학술적 의미에 주목하고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자강도 화평군에 오가산식물전시관을 개관하여 1,000여 점의 식물표본과 100여 점의 종자 표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전시관 주변에는 수목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⁶⁶

오가산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상징하는 곳으로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정의되면서 김정은 시대 생태환경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⁶⁷ 오가산은 2015년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되는 무렵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연원시림을 후대에 잘 물려줘야한다’는 유훈을 남긴 곳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4월 9일

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9).

⁶⁴ “오가산자연보호구,” 『로동신문』, 2011.11.8.

⁶⁵ 『조선중앙통신』, 2003.10.8.

⁶⁶ “오가산식물전시관 개관,” 『연합뉴스』, 2012.7.9.

⁶⁷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오삼언,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2호 (2019), pp. 269~296.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는 오가산 관리문제가 토의되면서 오가산의 달라진 위상이 확인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김광철 대의원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오가산자연보호구 보존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가산 관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 대의원은 오가산 내 새로운 담당제 시행, 원격감시체계를 위한 소형발전소 완공, 산림 조성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⁶⁸

북한의 각종 문헌에서 오가산은 2008년 7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일화로 강조된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가산자연보호구는 형성력사가 오래고 여기에는 희귀한 여러가지 동식물들과 천연원시림이 있는것만큼 잘 보존관리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1,100년된 주목을 살폈다고 한다. 이 주목은 이른바 ‘오가산 주목’으로 지칭되는데 북한의 문헌에서 오가산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오가산 주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 불만 하다, 역센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 나무는 아래쪽에 내려가서 올려다보아야 더 멋있게 보일 것”이라며 세심히 살폈다고 각종 문헌에서 반복해서 강조된다.⁶⁹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가산자연보호구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조하며 과학영화, 기록영화 제작 등을 당부했는데 이를 계기로 오가산이 북한 내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일화는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 등에 반복해서 실리고 있다. 2018년 1월 『로동신문』은 자강도 사진전람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가산을 방문했을 당시를 촬영한 사진, ‘오가산자연보호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라는 사진 문헌이 전시됐다고 보도했다.⁷⁰

『로동신문』은 오가산에 대해 “나라의 동식물 자원을 적극 늘여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 당의 자연보호정책의 뚜렷한 증시”라고 선전하고 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들과 이로운 동식물 자원을 더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¹

⁶⁸ 『조선중앙통신』, 2003.10.8.

⁶⁹ “오가산의 메아리,” 『로동신문』, 2019.2.11.

⁷⁰ “자강도사진전람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개막,” 『로동신문』, 2018.1.16.

⁷¹ “자랑스러운 국보-오가산자연보호구,” 『로동신문』, 2016.7.10.

2016년 약 800ha였던 천연기념물이 2021년 6,500ha로 확대 등록된 오가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과 다를 바 없는 오가산 보존 및 관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로동신문』은 가족 31명 전원이 오가산자연보호구에서 일하며 헌신하게 된 사연을 보도하면서 “위대한(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에 집단진출하여 양묘작업반을 조직하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고 모범사례로 추켜세우기도 했다.⁷²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에서도 오가산을 언급한 기사가 대체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은 이 시기 자연보호구 정책에서 오가산이 갖는 비중을 보여준다(표10).

〈표 10〉 『로동신문』의 ‘자연보호구’ 보도 중 ‘오가산’ 관련 보도 빈도

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연보호구	3	13	3	10	5	8	16	6	5	2
오가산	2	10	2	7	2	6	7	1	1	2

출처: 『로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V. 결론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생물권보호구가 법 체계에 삽입되는 등 자연보호구법이 개정된 것은 자연보호구 정책이 강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자연보호구는 1995년 127곳, 692,927ha에서 2006년 326곳, 876,035ha으로 179,108ha 면적이 확대됐는데 2018년 이후 유용동물보호구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용동물보호구가 최소 26곳, 임시보호구가 300여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자연보호구 개수와 규모 등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2022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자연보호구 관련 기사를 크게 2가지인 ‘자연보호구 해당 키워드’(자연보호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새보호구, 습지보호구 등 총 8개)

⁷² “이런 산림가정들이 있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진다.” 『로동신문』, 2016.4.1.

와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유용동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역사유적, 생태관광 등 5개)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연보호구 해당 8개 키워드의 기사량은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구에 해당하는 ‘동물보호구’ 관련 기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동물보호구 관련 조사사업이 본격화된 것이 동물보호구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등 보도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연보호구 연관 5개 키워드의 기사량은 2019년에 가장 많이 보도됐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변화 추이는 크지 않다. 자연보호구 연관 키워드 중에서는 ‘유용동물’ 키워드만이 2020년과 2021년에 대폭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보호구 해당 8개 키워드를 모두 합한 보도에서는 양강도(50건), 자강도(41건)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두 지역은 오가산 등 자연보호구 관련 보도가 많았다. 뒤를 이어 평안북도(18건), 함경북도(12건), 황해남도와 강원도(각 10건)가 보도량이 많았는데 이들 지역은 생물권보호구, 동물보호구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이와 달리 자연보호구 연관 5개 키워드에서는 강원도(169건), 평안북도(112건), 평양시(109건), 황해남도(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 관련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용동물 관련 보도는 황해북도(14건), 평안북도(10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특징을 나타냈는데 ‘동물보호구’ 관련 보도에서도 황해북도(4건)와 평안북도(9건)는 남포특별시(4건)와 함께 보도량이 많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로동신문』의 질적·양적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보호구 정책을 분석해보면 유용동물보호구의 확대, 오가산자연보호구 부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모두 2015년부터 시작된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전역의 동물보호구에 대한 조사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되고 2020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도 차원의 유용동물보호구 건설을 지시하면서 유용동물보호구 확대 정책이 본격화됐다. 2019년부터 빈도수가 늘어나는 『로동신문』의 보도 양상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오가산자연보호구는 800여 정보였던 천연기념물 대상지가 2021년 6500여 정보로 대폭 확대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가산 천연원시림을 후대에 잘 물려줘야한다’고 유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오가산자연보호구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위 두가지 특징은 모두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유용동물보호구 정

책이 산림복구전투와 연관되는 이유는 유용동물의 서식 환경이 산림조성과 밀접히 연관될 뿐만 아니라 유용동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기관이 산림총국이라는 점, 대중동원이 용이한 산림복구전투 체계를 활용한 시·군 단위 정책 집행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천연 원시림으로서 산림복구전투의 정당성과 정책 효과 등을 선전하는 데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맞물려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은 2015년부터 시작된 산림복구전투와 연계되어 확대 및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보호구 정책의 강화 양상은 생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의 전망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용동물보호구, 생물권보호구 등의 자연보호구 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오가산 등 원시림 관련 산림과학 기술분야, 유용동물 관련 교류협력 등 다방면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 제출: 10월 26일 ■ 심사: 11월 21일 ■ 채택: 11월 27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북한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제5권, 1987.
- 김경민·임중빈·김은희 외.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제20-1호, 2020.
- 명수정 외.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손기용 외.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

2. 논문

- 김명신.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제3호, 2021.
- 김서린.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국립공원연구지』. 제3권 제9호, 2018.
- 명수정. “북한 환경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북한통계 해설자료. 통계청. 2021.12.
- 오삼언.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2호, 2019.
-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 오삼언·김은희.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 성과와 양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2021.
-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8.
- 오삼언·김은희·김경민·박소영.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9.
- 오삼언·박소영. “김정은 시대 자연보호구 정책의 특징 연구.” 2023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2023.4.21.
- 오삼언·박소영.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현대북한연구』. 제25권 3호, 2022.
- 이우영. “북한 명승지 정책의 성격.” 『통일인문학』. 제53권, 2012.
- 이윤·차은영. “북한의 「자연보호구법」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보호제도 고찰: 경제분석의 한계.” 『한국환경과학회지』. 제23권 제12호, 2014.
- 최동묵·박순성. “북한의 멸종위기동물과 관련 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북한학연구』. 제16권 제2호, 2020.
-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9.
- 최현아. “김정은 정권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신진연구자논문집』. 통일부. 2019.

허학영·유병혁.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5권 제1호, 2021.

3. 북한 자료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올해 환경오염확대 방지 등을 추진.” 『조선의 오늘』. 2020.2.14.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로동신문』. 2022.4.5.

“리로운 동물을 많이 번식시켜 조국강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자.” 『로동신문』. 2020.4.5.

“숭고한 애국의 뜻 받들어 푸른 숲 끝없이 펼쳐가리.” 『로동신문』. 2018.3.4.

“오가산의 메아리.” 『로동신문』. 2019.2.11.

“오가산자연보호구.” 『로동신문』. 2011.11.8.

“유용동물들을 적극 보호증식하자.” 『로동신문』. 2021.4.21.

“유용동물보호구를 늘이는 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0.3.11.

“유용동물보호구를 새로 꾸린다.” 『로동신문』. 2020.3.5.

“유용동물보호사업 힘있게 전개.” 『로동신문』. 2020.2.18.

“유용동물보호증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로동신문』. 2021.11.23.

“이런 산림가정들이 있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진다.” 『로동신문』. 2016.4.1.

“인류의 공동과제-생물다양성의 보호.” 『로동신문』. 2020.5.22.

“자강도사진전람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창조와 변혁의 20년》개막.” 『로동신문』. 2018.1.16.

“자랑스러운 국보-오가산자연보호구.” 『로동신문』. 2016.7.10.

“천연기념물-오가산원시림.” 『메아리』. 2021.3.6.

『로동신문』. 2018.8.4.

『로동신문』. 2020.2.18.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평양:모란인쇄기술사. 2005.

『조선중앙통신』. 2003.10.8.

DPR Korea. 3th National Report of DPR Korea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December 28, 2005.

DPR Korea. 4th National Report of DPR Korea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

DPR Korea. 5th National Report of DPR Korea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6.

DPR Kore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1998.

DPR Kore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2007.

DPR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2030

Agenda. 2021.

김정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조선중앙통신』. 2012.5.8.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5년 2월 26일).” 『로동신문』. 2015.2.27.

4. 기타 자료

“北. 식용 야생동물 사육 확대.” 『통일뉴스』. 2003.10.10.

“북한.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호전략 마련.” 『NK경제』. 2020.2.14.

“순천만과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나란히 지정.” 『경향신문』. 2018.7.26.

“오가산식물전시관 개관.” 『연합뉴스』. 2012.7.9.

Characteristics of the nature reserve policy since Kim Jong Un Era

Oh, Sam Un · Park, So Young***

This paper collected and analyzed keywords related to nature reserves in Rodong Sinmun from 2013 to 2022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nature reserve policy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A total of 13 keywords, including 8 keywords corresponding to nature reserves and 5 related keywords, were used to analyze trends and contents by year and region. Overall, reports related to nature reserves have increased since 2019, and reports related to useful animals have increased since 2020. The most common keywords for nature reserves were Ryanggang-do(province) and Jagang-do(province), while related keywords appeared in that order: Gangwon-do(province) and Pyonganbuk-do(province).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e reserve policy through 『Rodong Sinmun』,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Useful Animal Reserve and Ogasan Nature Reserve are being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connection with the forest restoration battle that began in 2015. The Ogasan Nature Reserve, a natural virgin forest, has been highlighted as a symbol of Kim Jong Il's patriotism, and the number of natural monument sit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more than 6,500 hectares. At least 26 useful animal reserves and 300 temporary reserves have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y to protect useful animals, and changes are expected in the overall scale and pattern of nature reserves.

Key Words: kim Jong Un, Nature Reserve, Useful Animal, Animal Reserve, Mt. Oga.

* Research Associate at NIFoS

** Research Official at NIFoS